



행복한 성당, 하와이 한인성당

하와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Oratory

- 주임신부 : 권지훈(베드로)
- 사목회장 : 김성연(야고보)
- 사 제 관 : (808) 422-1040
- 사 무 실 : (808) 422-1010

◦ 성당 주소 : 511 Main St, Honolulu, HI 96818 ◦ 성당 이메일 : honolulukcc@gmail.com
◦ 홈페이지 : <https://standrewkimhawaii.org>

제2276호

2025년 11월 23일(다해)

미사 안내	평일	화, 수, 금 : 오전 10:30 목 : 오후 7:00 (성체 강복: 매달 첫 번째 목요일 7시 미사 중)	주일	토 : 오후 4:00 일 : 오전 06:30, 10:30 오후 4:00 (St. Peter & Paul 성당, 매월 셋째 주 마우이 공동체 오후 2:30)
연령회	병자성사, 봉성체를 희망하시거나 임종 환자 또는 망자 발생시에는 신속히 연령회로 연락 바랍니다. - 연령회장: 김미아 헬레나 (808) 291-7811			



오늘의 미사

온 우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 1독서 : 사무엘기 하권 5,1-3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
▶ 화답송 :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 2독서 : 콜로새서 1,12-20	▶ 복음 : 루카 23,35-43



사목공지

- ① 12월 21일(일)은 Peter & Paul 성당 파견 미사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 ② 12월 21일(일)은 마우이 공동체 미사(오후 2:30)가 있습니다.
(St. Anthony Church - 1627 Mill St. Wailuku, HI 96793)
- ③ 12월 봉성체 안내
12월 봉성체는 12월 18일(목, 오전) 서쪽 지역, 12월 19일(금, 오후)
동쪽 지역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 ④ 12월 8일(월) 오전 10:30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미사가 있습니다. 호놀룰루 교구 의무 축일이며,
봉헌금도 있습니다.
- ⑤ 매월 셋째 주 '화해와 일치 주간' (11월 16일~22일)
- ⑥ 매월 넷째 주 11월 23일(일) '한끼 나눔'
- ⑦ 11월 27일(목, Thanksgiving Day) 평일 미사는 없습니다.
- ⑧ 미사 참석시 명찰 착용 부탁드립니다.



사목위원회

※ 교육분과 공지

교리교육 주제

- 11월 23일: 종합 교리
 - 11월 30일: 15과 은총의 샘인 성사 (신부님 강의)
- 시간: 오전 9시, 장소: 예비자 교리실

교리에 관심있는 신자분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구역 및 단체

① 꾸리아 월례 모임

일시: 11월 30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컨퍼런스 룸

② 성모회 모임

일시: 11월 23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새신자 교실

③ 교육분과 모임

일시: 11월 23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컨퍼런스 룸

④ 하와이카이 구역 모임

일시: 11월 23일(일) 오후 6시
문의: 김 글라라 349-2654

⑤ 알라모아나 구역 모임

일시: 11월 29일(토) 오후 6시
문의: 김 엠마 228-0088

⑥ 와이파후 구역 모임

일시: 11월 29일(토) 오후 6시
문의: 안 마르첼라 391-8347
장소: 새신자 교리실

■ 故 한순애 발바라 자매님께서 11/18일 향년 95세 선종하셨습니다.

연도: 11월 30일(일) 교중미사 후
많은 참석 부탁드리며, 고인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과달루페 성지순례자 모집

신청마감: 11월 23일

일시: 2026년 4월 26일(일) ~ 5월 1일(목)

비용: \$2,230 / 2인 1실 (독실 \$440 추가)

신청: 박 로렌 엘리사벳 (전화: 382-9221, Laurenpak33@gmail.com)

기타공지

※ 주일학교 및 자모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주일학교 및 자모회 기금 마련을 위한 장터 시장이 열립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일시: 11월 22일(토) 4시 미사 후, 11월 23일(일) 교중미사 후

판매품목: 빵, 깻잎, 고추지, 양배추 김치, 냉우동 샐러드 및 소스, 된장,
우리 성당 로고가 들어간 가방 및 텀블러



헌금

12월 13/14일 Retirement Fund for Religious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11월 15/16일: \$8,318				지난주 미사 참례자 수	총 308명
	주일헌금	교무금	2차헌금	특별헌금		
	\$3,196	\$3,760	\$1,305	\$57		

Business Insurance Service, Inc

보험 컨설팅, 상가·집·자동차 보험
사도요한 김형섭 / 599-9810, 592-5011

New York Life

은퇴연금/학자금/투자/재무설계
차 그레고리오
808-226-3344

브라이언 오토 바디샵

자동차바디수리·보험처리/친절상담
홍 프란치스코 / 836-5887

Ginzawon (긴자원)

Korean B.B.Q (Waikiki)
문의: 김태영 안토니오
808-220-0768
808-922-3387

뷰티터치 (BEAUTY TOUCH)

한국 화장품 종합 백화점
문의: 임영림 안나
Tel: 808-271-4802

묘지매매

묘지: Korean Memorial Garden Lot 39
Section B Sites 1,2,3,4
(판매) 가격 절충 가능
문의: 심소영 / 808-798-5100

※ 미사: 미사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1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특별한 만남인 미사의 아름다움을 되찾고, 각자의 삶의 완전한 의미도 되찾을 수 있는 미사를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교황님께서서는 미사에 관해 설명하시면서 “만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삶의 원동력을 받아 나가기 위해선 주님과 특별한 만남인 미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미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보편교회가 강조하는 미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눠보았습니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미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히 다뤄보고자 합니다.

“미사”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Missa”에서 유래했으며, 이를 있는 그대로 발음한 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미사입니다. 실제로 이 용어가 처음부터 사용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초기 교회에서는 “빵 나눔”, 2~3세기에는 “감사기도, 감사”, 4세기에는 “제사, 봉헌, 성무, 집회” 등으로 불렸습니다. 5세기에 이르러 서방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상의 제사를 재현하며 최후 만찬의 양식으로 그리스도 친히 당신 교회 안에 물려준 가톨릭교회의 유일한 만찬 제사를 지칭하는 의미>로 “미사”라는 단어가 통용됩니다. 그리고 1562년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에서는 미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미사는 성부께 드릴 수 있는 진정한 봉헌 제물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예절”. 이러한 설명과 함께 그리스도가 봉헌한 것과 같은 것을 교회도 봉헌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의미들을 바탕으로 미사의 성격은 교회의 공적 행위로서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에서 신자들과 함께 예절을 거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사의 성격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도 “공동체적 행위로의 전례”임을 강조함으로써 참된 미사의 성격을 재차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이면서도 자발적인 참여로 미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타인의 기도가 아닌 우리의 기도이고, 교회의 사적 행위가 아닌 공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미사에 참석하는 이들이 마치 음악회를 보러 온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교회의 정신에 어긋납니다. 미사에 참석하는 이들의 태도는 수동적이지 않고 적극적이어야 하며, 의무감으로 참석하는 미사가 아닌 마음을 다해 함께하려는 마음으로 참여할 때 주님과 특별한 만남과 마주하게 됩니다.

대전교구 윤진우 세례자 요한 신부



알아드립니다

※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강론 요약본

오늘은 전례력의 마지막 주일인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이 날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왕권에 대해 묻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분은 내 삶에서 어떤 분인가? 오늘의 독서와 복음은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공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왕들과 전혀 다른 왕이십니다. 세상에서는 왕을 힘과 권력, 군사력으로 묘사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왕, 사랑과 자비로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사도 바오로는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라 선언하며,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으며,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가 흔들릴 때 그분과의 연결이 끊어졌음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복음은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조롱하지만,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두 죄수의 대화에서 하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이가 바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왕권은 겸손과 사랑, 희생에 기반합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군림하거나 강요하지 않으시고,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돈, 인정, 욕망 등 다른 가짜 왕에 지배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가 왕이라면, 우리는 복수 대신 용서, 미움 대신 사랑, 불안 대신 신뢰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돕고, 상처받은 이들을 품으며, 남을 험담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 왕국의 삶입니다.

복음 속에서 선한 강도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의 삶과 기도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권지훈 베드로 신부

ARBOR Financial Group NML# 236669

심소영: 주택융자담당
Cel:(808)798-5100
Email:sharis@arborfg.com

최 니콜 부동산

Locations,LLC Cell 225-5566
www.ChoiHawaii.com
nicole.choi@locationshawaii.com

메디케어 보험

(65세 이상 및 장애인)
한국어, 영어 가능(심 크리스티나)
Shari Shim / 798-5100

광고 문의

사무실
808-422-1010

A'ALA Meat & Seafood Inc

문의전화 808-452-8473 서삼열 사무엘
samseo@aalameatandseafood.com

보나 최 부동산

문의 전화 808-636-5217
bona.choi@cbpacific.com
Coldwell Banker P.P.

